



2025년 4월 1차 영양교육자료

- 기후위기대응 채식급식(1) -



우) 56318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313 교무실 063)580-7777 FAX 063)584-5143

기후위기대응 채식급식(1)

1. 기후 위기! 지구가 아파요.

- 우리의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**지구온난화** 현상으로 아파하고 있어요.



2.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?

- 지구가 뜨거워지면 극심한 폭염, 긴 장마와 초강력 태풍, 극심한 한파 등의 **이상 기후 현상**이 나타나요. 또한 남극,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지가 물에 잠겨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과 동·식물들을 잃게 될 수 있어요.

3. 기후 위기와 감염병

- 더워지고 습해진 지구는 병원균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, 병원균의 확산과 변형을 촉진하여 제2의 코로나를 일으킬 수 있어요. [한국기후학회 전문가, 코로나 발병주기 3년 예상]

이상기온으로 살 곳을 잃은 동물이 인가로 내려옴



사람과의 교류 증가



(인수공통) 감염병 교환

⇒ 인간+동물+환경은 하나의 건강을 교류하는 **‘운명공동체’**

4. 지구는 왜 뜨거워지게 되었을까?

- 지구가 뜨거워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많은 양의 **온실가스** 때문이에요. 온실가스의 종류에는 이산화탄소, 메탄가스, 아산화질소, 블랙카본 등이 있어요.

5.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

- 에너지를 절약해요.
-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해요.
-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, 캔 등은 분리배출 해요.
- **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려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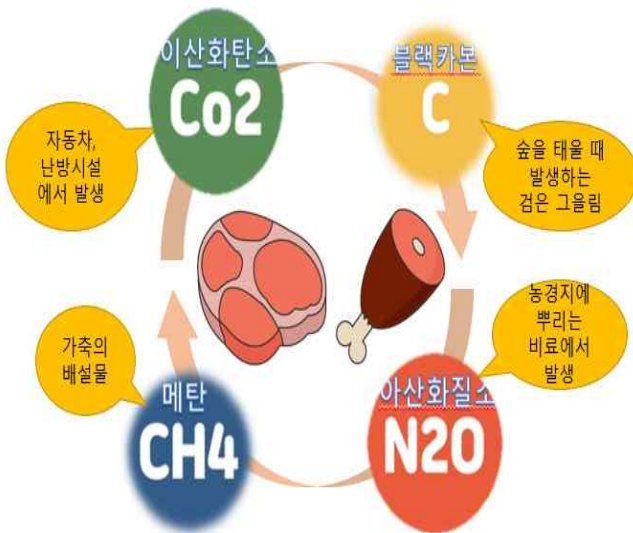
<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비율 >

※ 출처 :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보고서, 200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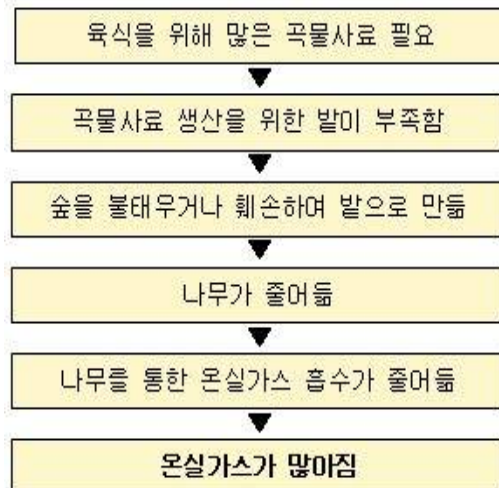
6. 먹거리와 온실가스

- 숲을 불태워 땅을 개간하거나, 화석연료로 만든 비료를 생산하고, 가축의 트림이나 분뇨에서 나오는 가스 등 먹거리를 생산하고 운반할 때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어요.



7. 온실가스 주범은 육식?!

- 우리가 먹는 소의 트림과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3배 지구를 뜨겁게 해요.
- 많은 동물을 먹이기 위해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탄소를 발생시켜요.
- **이산화질소의 65%가 축산업에서 발생**하며,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이 무려 296배 높아요.
- 소고기를 1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물사료 7~16kg가 필요해요.



8. 채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.

- 한국인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만 육식을 달걀, 콩 등의 대체 단백질로 바꾸고 채식 생활을 해도 **1인당 연간 1톤의 탄소**를 줄일 수 있어요.
- = 자동차 500만대를 멈추는 효과
- = 논, 밭의 75%가 절약
- ⇒ 그 논, 밭에 나무를 심으면, **나무가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지구의 기온을 낮출 수 있음**

< 출처: 환경부, 충청북도교육청, 국가기후환경회의, 국가환경교육센터 >